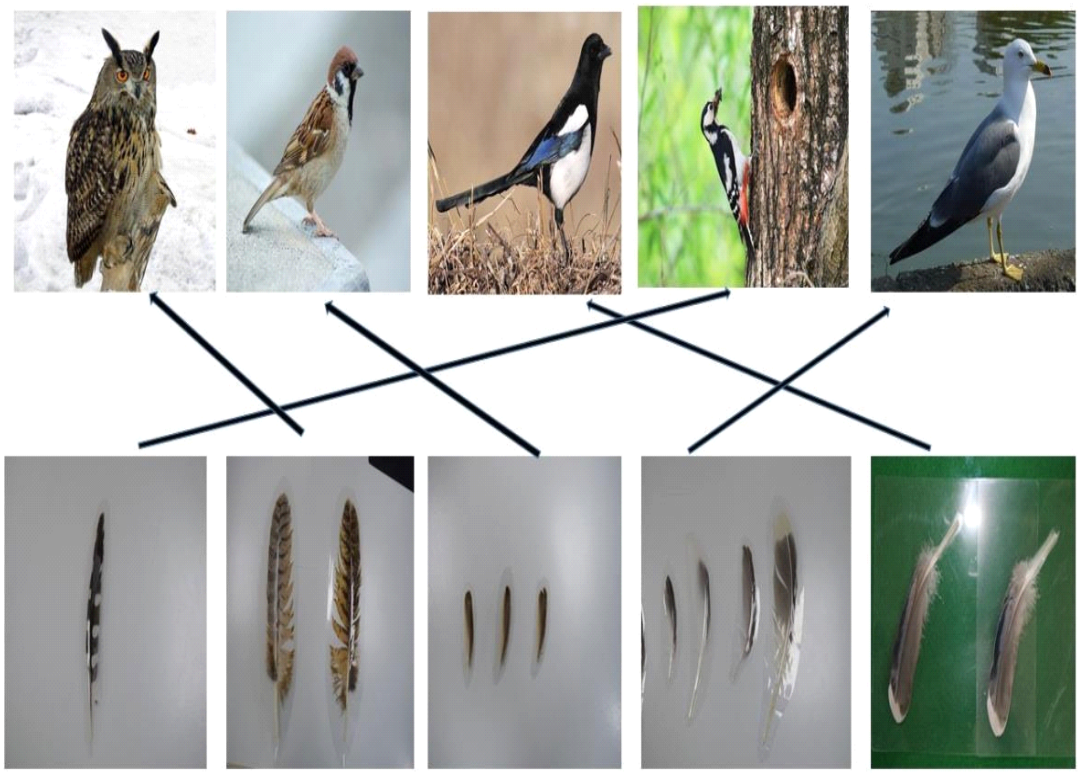
나는 누구의 깃털일까?

개발자	김현순(태안해안국립공원소근사무소)
관찰로에 살아가는 동물들 중 그 흔적들을 통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감을 알 수 있다. 주변에 떨어진 깃털을 찾아보며 그 깃털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깃털들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.	
활용대상	유아 ~ 중.고등
활용시기	사계절
준비물	새 깃털, 새 사진
소요시간	20분
제작비용	없음



	
바닥에 떨어진 새깃털 줍기	누구의 깃털인지 알아보기

운영방법

1. 참여자에게 주변에 떨어진 새 깃털을 주워오게 한다.
2. 새 사진을 보여준다.
3. 깃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생각하게 한다.
4. 날아야만 하는 새들에게 깃털의 역할과 새의 종류마다 깃털이 다름을 안다.

향후방향

미래세대 교실 수업 시 가능하도록 다양한 깃털과 사진을 확보하여 진행할 예정이다.

참고내용

※깃털의 역할

날개깃– 날아오를 수 있는 항력과 추진력을 만들어낸다.

머리깃과 몸깃– 몸을 보호하고 바람의 저항을 줄여주며, 물새는 방수역할을 한다.

꼬리깃– 비행 시 균형과 방향을 조절한다.

배와 등의 깃– 보온, 유선형의 몸구조를 만든다.

주의사항

– 야외에서 진행시 안전(벌레. 타박상)에 유의하도록 주의사항을 준다.

– 우천 시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깃털을 미리 준비해 둔다.